

2018 년 7 월 28 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1) 아가서: 에덴의 증만”(아 8:6-7)

<도입>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erotic love)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랑 이야기가 지혜서에 실릴 수 있었을까요?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사람(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창 2 장에서는 남녀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감정과 서로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가서 구조와 특징(김구원 목사)

- I. 1:1~2:15 남녀의 고백, 서로에 대한 찬양, 긍정, 청혼
- II. 3:1~5:1 결혼 -> 한 몸이 된 남녀
- III. 5:2~7 관계의 위기
- IV. 5:8~6:1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 V. 6:2~7:13 더 깊어진 사랑
- VI. 8:1~7 주제시: 죽음같이 강한 사랑
- VII. 8:8~14 에필로그

특징(공통분모는 사랑):

- (1) 에로틱한 사랑을 통해서 재발견된 에덴을 밝혀준다. '구원과 남녀사랑'에 대한 안목
- (2) 에덴의 이미지와 주제들을 변형하여 나타냄 - 에덴에 대한 주석
- (3) 에덴의 회복은 남녀의 사랑의 연합에 의해 이루어짐을 예기
- (4) 결혼 속에서 설정된 남녀 사랑 -> 출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미와 신성함을 확인

아가서는 남녀 사랑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랑신학은 선지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혼인관계로 나타납니다(사 54:5).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결혼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신으로 인해 파기되었음을 슬퍼합니다(호세아, 예레미야, 나훔, 에스겔 등)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사람안에 담겨졌던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십니다. 에덴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아담/하와의 사랑이 확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이 간 이 사랑에 관해 어떻게 회복될 지를 아가서가 보여줍니다.

[2] 아가서에 비춰진 것들

- (1) 아가서에는 여인의 에로틱한 관계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나타납니다(참고 1:2-4). 이러한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아가서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관계 위기 후에 회복을 위한 노력의 주도권도 여자가 취합니다(5:8-9,10 이하). 이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구는 여성에게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여성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 (2) 결혼이란 에덴에서 확립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아담/하와의 사랑의 체험이 오늘 날 결혼을 통해서 사람에게 재체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에덴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보편적 은혜의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 4 장에서 펼쳐집니다.
- 결혼의 절대기초는 남녀의 에로틱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덴에서의 첫 인류의 에로틱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에로스는 본래 천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의 에로스는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합니다. 타락 후에 욕망의 무분별한 에로틱 사랑이 죄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에로스의 본질에는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 (3) 아가서에서 결혼은 정원에서 이루어집니다(4 장). 이 정원은 에덴을 묘사하는 언어들로 표현됩니다.
 - ㄱ. 정원(동산) - 우물이나 샘이 정원을 적심(12 절)
 - ㄴ. 각종 아름다운 나무, 과수, 열매들(13 절)
 - ㄷ. 나도, 번홍, 창포, 향나무, 몰약, 침향 같은 향료들

ㄹ. 북풍, 남풍 -> 동산으로 불어라(창 3:8 참조).

ㅁ. 몰약, 향재료, 꿀송이, 포도주, 우유(5:1)

→ 모두 에덴의 언어들.

정원으로 사랑하는 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원의 열매를 함께 즐깁니다(4:16, 5:1). 또한 정원은 사랑받는 자와 일치되기도 합니다(4:12-14).

4: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잠근, 덮은, 봉한'이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한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인의 태의 신비를 말합니다. 여인의 태와 에덴의 공통점은 인간 생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고귀합니다.

[3] 에덴의 회복을 향한 사랑의 경험

에덴에서 시작한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생명의 활력을 주는 주님의 통치의 세계)으로 부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가꾸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체득하게 하십니다. 주변의 식물과 동물을 돌보며, 열매를 잘 길러 즐기며, 친근하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남녀의 결혼의 하나됨을 위한 헌신은 참 생명됨을 이룹니다. 에덴은 이러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인의 태 안에서도 생명이 잉태되어 온전한 사람(신생아)이 될 때까지 길러주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녀는 위에서 언급한 에덴에 합당한 참생명됨의 미래를 내다보며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이상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벽을 쌓고, 자존심, 비하의 느낌들, 불안,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찬 현재만이 현실의 전부입니다. 말씀에 비취볼 때 때로는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사랑의 경지도 믿음으로 내다보아야 합니다.

<맺음>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에덴)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사모했고 그 회복을 위한 하나의 답을 아가서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참 사랑입니다. 에덴의 회복은 이 사랑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축복이 넘쳐서 저마다 에덴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아가서에서 말하는 남녀의 사랑은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오늘 날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사랑입니다. 그것은 참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에 관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봅시다.
2. 아가서는 에덴의 많은 표현과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창조의 주역인 남녀가 어떤 관계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에덴회복에 있어서 사람의 사랑관계가 필수적이라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